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서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원도의회, 태풍 "카눈" 호우 피해지역 현장 점검 나서	1
강원도민일보	02면	재대본 비상 3단계 격상 '선조치 후보고' 인명피해 최소화	2
江原日報	02면	'태풍 피해 막아라' 도 전역 24시간 대응 체계 튼튼 밤 지새	3
江原日報	12면	권혁열 자치도의장 태풍 피해지역 방문	3
CBS	온라인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태풍 카눈, 피해 예방 최선"	4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부의장 치열한 물밀경쟁	5
江原日報	13면	명품 ‘인제 벌꿀’ 브랜드 개발 박차	6
江原日報	온라인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태풍 카눈 대응 종합상황실 ...	7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원교육청 교사 보호 나선다... 교권강화 조례 제정 지원...	8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조직위 "IOC 요구대로 매뉴얼 작동... 대회 준비 원활"	9
강원도민일보	03면	김진태 "걱정 고마우나 가짜뉴스 사양" 전면 차단	10
江原日報	01면	김진태 도정 출범 1년간 127개 공약 중 14개 달성	10
江原日報	01면	400mm 물벼락에 동해안 곳곳 물바다 ... 400여명 긴급 대...	11
江原日報	01면	맨몸으로 대피하는 상인들	11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 재대본 회의	12
江原日報	02면	도내 학교 48곳 학사 일정 조정	12
江原日報	05면	"산불 복구했더니 이번엔 수해" 강릉 주민들 망연자실	13
江原日報	05면	양양 하천 옆 축대 붕괴	14
江原日報	05면	“물 순식간 차올라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	14
江原日報	04면	도내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 전국 최고	15
강원도민일보	11면	'WT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 시의회 통과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정부 접경지 발전 예산 대폭 반영을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태풍 피해 응급복구 전력해야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초등 교사 임용 역대 최저, 강원교육 이대로 괜찮나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태풍 등 기후 재난 관리, 이제는 일상화해야 한다	19

2023 08 10 ()

강원도민일보

강원도의회, 태풍 "카눈" 호우 피해지역 현장 점검 나서



▲ 권혁열 강원도의회장과 심오섭·최승순 도의원이 10일 강릉 경포호 삼일탑 앞 도로에 방문해 배수 시설 등을 점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한반도에 상륙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현장 점검 등에 나섰다.

권혁열 도의회 의장과 심오섭·최승순 도의원은 10일 오후 지역구 강릉의 경포·사천해변 진입로 등 재해취약 지구를 점검했다.

이날 1시 기준 삼척엔 316mm, 강릉 258mm, 동해 243mm 등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권 의장 등은 경포호 입구 삼일탑 도로를 찾아 예방 시설 등을 점검했다.



▲ 권혁열 강원도의회장과 심오섭·최승순 도의원이 10일 강릉 경포호 삼일탑 앞 도로 등 상습 침수 지역에 방문해 배수 시설 등 현장을 점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에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권 의장은 "도의원들이 지역구별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취약지역 사전 점검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11 ()
02

재대본 비상 3단계 격상 '선조치 후보고' 인명피해 최소화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

공무원 전원 비상근무 체제 돌입
김 지사, 상황실서 24시간 근무
도·시·군 재난상황 실시간 공유
도의원 지역구별 대비태세 점검

제6호태풍 '카눈'이 북상, 강원특별자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2800여명 공무원 전원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김진태 지사는 10일 도청 종합상황실 24시간 근무에 돌입하며 "도민 안전을 위해 1분 1초 빠른 대응에 나서겠다. 공무원의 최대 임무는 도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재난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를 발령했다. 도 재난대응전담팀은 28개 부서·59명으로 확대, 2846명의 도청·시·군 공무원



전국이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어선 10일 춘천 남춘천역에서 태풍에 따른 전동열차 속도제한 안내를 하고 있다. 김정호

들이 비상근무를 유지한다.

김 지사는 "어제까지는 태풍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핵심이었고, 오늘은 도내 공무원들의 빠른 판단과 대응이 핵심"이라며 "도민을 비롯해 도를 찾아 주신 관광객 여러분은 외출을 삼가고 태풍 관련 안내방송과 지자체의 사전

통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개 시·군 및 유관기관 9곳과 재난 상황을 공유, 재난 상황 대처에 나서고 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은 전국 지자체의 재난 상황을 공유하는 상황 관리시스템(MDMS)과 경찰과 소방,

지자체간 재난안전통신망(PSLTE), 도 내 2만 2000여개의 재난·방범 CCTV, 마을방송(1786개소)·민방위경보(393개소) 등 예·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천 범람을 비롯해 도로 유실, 토사물 유출, 낙석 등 도내 각 시·군의 재난 상황을 실시간 확인·공유 중이

며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리고 있다.

재난 대응 유관기관 9곳(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수력원자력, 강원지방 기상청, 강원지방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상군작전사령부, 한국전력강원본부)은 도청 종합상황실에 근무자를 파견, 각 기관의 상황 조치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다. 도는 시·군 및 각 기관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재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도 현장 점검 등에 나섰다. 권혁열 의장과 심오섭·최승순 도의원은 이날 오후 지역 구강릉의 경포·사천해변 진입로 등 재해취약지구를 점검했다. 권 의장 등은 경포호 임구 삼일탑 도로를 찾아 예방 시설 등을 점검했다. 박기영 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을 방문, 태풍 대비 태세 현황을 살폈다.

권 의장은 "도의원들이 지역구별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취약지역 사전 점검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설화·김덕형

2023 08 11 ()

02

江原日報

‘태풍 피해 막아라’ 도 전역 24시간 대응 체계 튼튼 밤 지새

강원자치도 재대본 3단계 가동 18개 시·군 전 직원 비상대기
강원경찰청 최고 단계 ‘갑호’ 발령... 도교육청 수습본부 운영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은 물론 도교육청, 경찰·소방 등은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동안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등 뜬눈으로 밤을 보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10일부터 재해대책본부(재대본) 상황실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지역별 피해를 점검하고 대응 상황을 철저히 지휘했다. 강원자치도는 10일 오전 9시부터 재대본 대응 최고 등급인 3단계를 발령하고 도청 248명, 18개 시·군 2,598명의 직원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했으며 전 직원이 비상 대기했다.

김 지사는 도와 전 시·군에 ‘선 조치 후 보고’에 입각한 선제적 주민 대피 통제 등을 주문했다. 도는 393곳의 민방위경보시설과 긴급 재난문자 등을 통해 태풍 상륙에 따른 주민행

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다.

김 지사는 “도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1분 1초가 중요하고 3단계 해제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공직자의 최대 임무는 태풍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은 심오섭·최승순 도의원과 함께 경포·사천해변 진입로 등 재해취약지구 침수, 통제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도 이날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를 발령하고 24시간 대응에 나섰다. 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 480곳에 경찰 1,139명을 투입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경찰이 이날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할 구간은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인제, 정선, 양구 일대 도로 33곳(오후 3시 기준)이다. 침수, 토사 유출이 발생한 구간 외에도 위험이 확인된 곳까지 사전에 출입을 막았다. 정선경찰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이 일어났던 고한읍 고한리 4가구 7명을 대피시켰고, 계곡물이 불어날 경우에 대비해 이 지역 산책로 1.5km 구간 통행도 제한했다. 삼척경찰서는 최근 5톤 규모의 낙석이 발생했던 노고면 상마음리 427번 지방도에서 낙석 추가 발생 위험을 확인한 뒤 관계 기관과 공조해 차단막을 설치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7일 상습 침수 구역 예방 순찰 중 강동면 하시동리 풍호마을 하천이 새벽에 집중호우로 범람한 것을 발견해 수문 개방 조치를 취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지역사수습본부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기영·신하림기자

2023 08 11 ()

12

江原日報



권혁열 자치도의장 태풍 피해지역 방문 권혁열 강원자치도의장은 10일 심오섭·최승순 도의원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포·사천해변 진입도로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민원을 청취했다.

2023 08 10 ()

CBS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태풍 카눈, 피해 예방 최선"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요약

10일 강릉 등 도내 상습 침수지역 현장 방문, 대비상황 점검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이 강릉 지역구 도의원들과 함께 10일 강릉 재해취약지구 등을 현장 점검하며 태풍 카눈 피해 대응책을 점검했다. 강원도의회 제9기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0일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도내 상습 침수지역 현장을 찾아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릉 지역구 심오섭, 최승순 의원과 함께 경포·사천해변 진입로 등 재해취약지구 침수, 통제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재 모든 도의원들이 지역구별로 현장 예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江原日報

2023 08 11 ()
03

도의회 부의장 치열한 물밑경쟁

한창수·김기하·윤길로 도의원 '3파전'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직(본보 7월27일자 3면 보도) 선거를 두고 3파전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강원자치도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른다. 재선의 한창수(64·횡성) 기획행정위원장, 초선 김기하(63·동해) 도의원, 윤길로(60·영월) 도의원 등 3명이 부의장직에 도전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의장직 경선은 강원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후보당 5분이내의 정견발표(후보등록 순),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3명 후보에 대해 두번째 투표를 진행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3순위를 제외한 1, 2순위를 두고 제3차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 동수가 나올 경우 다선이 우선, 선수가 똑같은 경우 연장자가 뽑힌다.

국민의힘 원내는 15일까지 후보신청을 접수하는 가운데 한창수, 윤



◇한창수 의원



◇김기하 의원



◇윤길로 의원

길로 의원은 등록했다. 김기하 의원도 조만간 후보등록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선거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세명의 후보는 강원자치도 내 곳곳을 다니며 의원들에게 자신의 포부를 밝히며 표심을 얻기 위해 분주하다. 한 후보는 태풍의 영향으로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0일 춘천권 도의원들을 직접 만나러 다녔다. 또다른 후보도 영동과 영서권을 넘나들며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전화와 메시지로 의원들에게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창수, 김기하, 윤길로 등 3명의 후보 모두 기초의회 의장직을 역임했던 도의원이다.

박찬홍 원내대표는 “17일 경선을 마칠 때까지 공정하게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깨끗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이하늘기자



◇인제군 고품질 벌꿀 종합가공센터 신축 공사 준공식이 10일 북면 원통리에서 최상기 군수와 이춘만 군의장, 엄윤순 도의원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명품 ‘인제 벌꿀’ 브랜드 개발 박차

원통에 종합가공센터 준공
벌꿀 ‘원정농축’ 불편 해소

【인제】인제군이 명품 벌꿀 자체 브랜드 개발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군은 10일 인제군 북면 원통농공단지 인근에서 인제군 고품질 벌꿀 종합가공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벌꿀 종합가공센터는 2020년부터 21억원을 투입해 북면 원통리 825-6번지 일원 9,900㎡의 부지에 연면적 1,358㎡로 지어졌다.

건축 설계부터 HACCP 인증 기준을 적용해 벌꿀 자체 브랜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벌꿀 가공센터는 입고전실, 예열농축실, 내포장실, 외포장실 등의 작업공간과 벌꿀 농축기를 비롯한 화분 반죽기, 소분기, 압축포장기 등 가공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 5톤의 벌꿀 농축과 2톤의 화분떡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다.

인제지역에는 250여개 농가가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벌꿀 판매를 위한 가공시설이 없어 생산한 벌꿀을 농축하기 위해 인근 지역을 찾아다녀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 왔다.

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양봉과 관련한 각종 기자재 및 포장재를 반값에 공급할 수 있어 생산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특히 벌꿀 등 양봉산물의 품질도 균일화할 수 있어 지역 브랜드로서 제품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선익 군 유통축산과장은 “센터 운영을 맡은 인제축산업협동조합과 협업해 양봉 자체 브랜드화의 조기 정착을 목표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과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江原日報

2023 08 10 ()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태풍 카눈 대응 종합상황실 등 방문 격려



박기영 강원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10일 강원자치도 종합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태풍 카눈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대응 인력을 격려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10 ()

강원교육청 교사 보호 나선다... 교권강화 조례 제정 지원·교사 법률지원 강화



▲ 강원도교육청

교권침해로 인해 일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호소(본지 8월4일자 웹 등)하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10일 본지 취재결과 이영욱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교권보호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교원 대상 악성민원 방지,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구분을 통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 교원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학부모 상담의 경우 예약제를 통해 진행, 교사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영욱 의원은 "현재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무조건 피의자로 접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해 다들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학대의 기준이 아이의 감정이다 보니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달 중 교육부가 교권보호방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강원도의 실정에 맞게 내용을 다듬어 조례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원 대상 법률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강원변호사회는 이번 달 중으로 업무협약을 체결, 강원변호사회 소속 180여 명의 변호사들이 교원 법률지원에 참여하는 '교사와 동행하는 더 나은 원스톱 법률지원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역별 법률지원단을 구성, 교권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한 법률상담 및 경찰 조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철수 강원변호사회장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판단하에 도교육청과의 업무 협력을 결정했다"며 "최상의 법률지원으로 강원 교육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신경호 교육감은 "도 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률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강원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업

강원도민일보

2023 08 11 ()
03

도·조직위 “IOC 요구대로 매뉴얼 작동… 대회 준비 원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팩트체크

새만금 챔버리 부실운영 ‘불똥’
악의적 게시물 조목조목 반박
도 “대회 성공개최 최선 다할 것”

속보=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챔버리 대회’의 부실운영, 준비 미흡 논란을 엮어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비난하는 악의적 게시물(본지 8월 10일자 3면)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퍼지자 강원특별자치도와 2024 조직위가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2024 대회를 둘러싼 가짜 뉴스에 대해 도와 조직위는 1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요구대로 매뉴얼을 작동, 세심하게 대회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원활하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일부 게시물에서 중점적으로 언급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대회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시물 내용에 대해선 이미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 등 4개 도시 내 9개 경기장이 확정됐고, 경기 진행을 위한 민간소유의 경기장까지 사용계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속소 역시 2900여명 규모의 선수단을 수용할 2개 선수촌이 일찌감치 확정된 상태다. 강릉원주대 기숙사에 2600명, 정선 하이원마운틴 콘도에 350명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준비, 인터넷 커뮤니티 가짜뉴스에 2024 조직위·강원특별자치도 팩트 체크



“아직 장소도 안 정해졌다”

▶ “4개 개최도시(평창, 강릉, 정선, 횡성) 및 9개 경기장 확정(민간소유 경기장 사용계약 완료)”

“선수들 숙소 아직 없다”

▶ “2개 선수촌 이미 확정(강릉원주대학교 기숙사 2600명, 정선 하이원마운틴 콘도 350명)”

“예산 아직 다 안 나왔다”

▶ “대회운영 예산 700억원, 시설비 100억원 확정”

“후원사도 몇 개 없다”

▶ “코오롱, 한진관광 등 7개 기업 후원 확정. KT, 국민은행 등 4개 기업 후원 검토 중”

“성화봉은 아직 디자인도 안 나왔다”

▶ “성화봉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제작 후 9월 중 국내 반입 예정. G-100일 행사 시 공개 예정”

“성화 봉송 일정도 아직 안 잡았다”

▶ “성화투어 일정 확정. 그리스 채화 및 인수(10월 1일~5일)~성화투어 10월 11일~12월 28일
(도내 18개 시·군 학교 성화투어 10월 18일~12월 28일, 서울·부산·세종·제주 등 광역도시 성화투어 10월 25일~11월 4일) 확정”



의 선수단이 숙박할 예정이다.

대회 예산과 관련해선 대회 운영에 필요한 700억원·시설비 100억원 등이 국비와 도비를 통해 재원이 마련된 상태다. 이미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용됐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100억원의 예산이 집행, 오는 10월 중 시설 정비가 마무리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후원사가 몇 개 없다’는 주장 역시 가짜뉴스다. 도와 조직위는 코오롱, 한진관광 등 7개 기업 후원을 확정했으며 KT, 국민은행 등 4개 기업에서 후원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림픽의 ‘메인 이벤트’로 통하는 성화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오는 9월 중 성화봉을 제작, 조직위에 전달하게 되면 G-100일 행사에서 성화봉을 공개한 뒤 오는 10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성화투어 일정을 진행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회 준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도는 IOC 요구대로 매뉴얼을 적용, 디테일하게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08 11 ()
03

김진태 “걱정 고마우나 가짜뉴스 사양” 전면 차단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0일 “새만금 잼버리에 놀란 마음으로 걱정해주시는 건 고마우나 가짜뉴스는 사양하겠습니다”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저격한 가짜 뉴스 차단에 전면 나섰다.

이는 대회 파행 논란을 빚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준비 미흡 논란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불뚝이 튀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2024대회와 관련한 가짜 뉴스들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 강원자치도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10일 SNS에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준비가 엉망이라는 글이 돌아다닌다”며 “2024 강원 대회”를 향한 비판글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공유했다.

이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지난 2020년에 유치해서 준비돼 오던 것을 제가 작년에 도지사로 취임해 이어



김진태
4시간 전

온라인상에 2024 개최예정인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준비가 엉망이라는 글이 돌아다닙니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20년에 유치해서 준비하고 있던 걸 제가 작년에 도지사로 취임하여 이어받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글은 도대체 뭘보고 작성한 건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새만금잼버리에 놀란 마음으로 걱정해주시는 건 고마우나 가짜뉴스는 사양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림픽을 치렀던 곳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사실관계 바로 잡기에 나섰다.

받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인터넷글은 도대체, 뭘보고 작성한 건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새만금 잼버리에 놀란 마음으로 걱정해주시는 건 고마우나 가짜뉴스는 사양하겠습니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올림픽을 치렀던 곳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며 대회 성공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세훈

江原日報

2023 08 11 ()
01

김진태 도정 출범 1년간 127개 공약 중 14개 달성

민선 8기 김진태 강원도정이 출범 이후 공약 14개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달성이 어렵거나 목표 수정이 필요한 공약은 과감히 폐기 또는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자치도는 김진태 도정 공약 127개 중 14개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달성률은 11% 가량이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달성을 자체는 아직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목표를 달성한 공약은 도민·현

대부분 사업도 현재 진행형... 추진 난항 시 과감히 폐기
실·국장 검토 거쳐 수정·취소 등 여부 연말까지 결정

장 중심 조직개편, 도청 제2청사 설치, 어르신 조세 부담 완화,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 보상, 보훈수당 100% 인상, 사회복지인력 장기 근속휴가제 도입, 접경지역 군남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제도 유지 등이다.

도는 당초 10일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진행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제6호 태풍 ‘카눈’의 상륙으로 회의를

취소하고 서면으로 대체했다. 대신 김진태 지사는 전 실·국에 공약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시·군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추진이 지연된 사업은 신속히 대안을 마련할 것, 법령 개정·국가계획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국회의원실 등 정치권과 공동 대응할 것,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변경 또는 폐기도 면밀히 검

토하라’는 3가지 지침을 정했다.

예를 들어 영월·원주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약의 경우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계획이 포함돼 있었으나 감사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수정이 불가피하다.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8.4km 연장된 용대~백담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지역 공약도 군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자치도는 연말까지 실·국 검토를 거쳐 일부 공약의 수정·폐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023 08 11 ()
01

江原日報

400mm 물벼락에 동해안 곳곳 물바다 ... 400여명 긴급 대피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

▶ 관련기사 2·4·5·12~15면

제6호 태풍 '카눈'이 강원지역을 강타해 이틀새 최대 40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다. 11일에도 250mm의 비가 더 퍼부를 것으로 예보되면서 재난 대응에 초비상이 걸렸다.

■ 침수·파손 피해, 주민 대피령 잇따라=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9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수량은 속초 396.8mm, 삼척(궁촌) 387mm, 강릉 345.6mm, 양양(하조대) 302mm, 동해(달방댐) 278.5mm, 태백 199.2mm, 고성(대진) 326.5mm, 홍천(구룡령) 162mm 등이었다. 속초는 시간당 91.3mm, 고성은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피해를 키웠다. 동해 만반다에는 6.7m, 고성 토성 앞바다에는 6.1m의 높은 파도가 일며 태풍해일 위험도 높아졌다.

강릉 정동진전, 삼척 가곡천 등 주요 하천이 범람하며 주택, 상가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강풍피해·낙석·도로 통제 속출
도 최고 수위 비상 3단계 발령
오늘 250mm 더 내려 대응 비상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침수, 산사태 위험을 피해 경로당으로 대피한 인원은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평창, 정선, 고성, 양양 일대 167세대 411명이었다. 강릉 경포 등 해수욕장 일대와 동해 전통시장에도 침수 피해가 잇따라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대피하기도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도로 침수 78건, 인명 구조·대피 11건, 토사 낙석 16건, 간판 낙하 7건 등 총 367건의 태풍 관련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 도로·철도·하늘길 막으며 일상 마비=강릉까지 불며 모든 교통은 마비됐다. 10일 오후 3시 기준 지역별 최대 순간풍속은 설악산 초속 30.2m, 삼척 24.9m, 정선 23.6m, 대관령 22.7m였다.

이날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의 한 주택에서 강풍으로 지붕과 유리창이

파손돼 소방대원이 출동했다.

강원경찰청은 도내 도로 57곳의 차량 진입을 전면 차단했다. 또 공항 4개 노선(원주-제주, 양양-김포 등), 철도 4개 노선(대백선, 영동선, 중앙선, 관광열차)도 사전 통제됐다.

유치원, 초·중·고교 34곳이 단축·원격 수업을 했고 11곳은 휴업, 3곳은 개학을 연기하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도내 주요 댐들도 일제히 방류를 결정,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 횡성댐

은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수문을 개방하고 1초에 4.5톤의 물을 방류 중이다. 의암댐과 춘천댐도 9일 오후 7시부터 10일 오후 6시 30분까지 수문 각 1개씩을 열고 초당 각 269.5톤, 186.8톤을 방류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0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최고단계인 비상 3단계를 발령했다. 강원경찰청도 경비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를 발령하고 24시간 대응에 나섰다.

신하림·김준겸·김오미기자

2023 08 11 ()
01

江原日報



맨몸으로 대피하는 상인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강릉에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10일 경포 진안상가 주변 지역이 온통 물바다가 됐다. 상가에 물이 차오르자 상인들이 점포를 빠져나오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江原日報

2023 08 11 ()
02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강원자치도 재대본 회의 김진태 도지사는 10일 도청 재해대책본부에서 태풍 ‘카눈’에 대비한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江原日報

2023 08 11 ()
02

도내 학교 48곳 학사 일정 조정

휴업·단축수업 등 진행... 영동지역 침수 피해 잇따라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강원지역 학교의 34%가량이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영동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건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10일 하루 동안 휴업에 들어간 학교는 11개교다. 3개교는 개학을 연기했고, 단축수업 학교는 32개교, 원격수업 학교는 2개교로 집계됐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2학기 학사 일정을 시작한 143개교의 약 34%(48개교)가 태풍의 영향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다.

피해도 잇따랐다. 10일 오후 3시 현재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동해지역 고교 1곳의 교사동이 침수됐다. 해당 학교는 이날 원격수업을 진행해 학생 피해는 없었다.

강릉의 초교 1곳도 학교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운동장이 물에 잠기고 학교내 건물 누수 피해가 발생해 교직원들이 모두 대피했다. 방학중이라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교육청은 학교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자 제2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본격 가동했다. 지역사고수습본부는 태풍으로 인한 교육시설물 피해 및 학사 운영 조정 등의 재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교와 교육현장의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관리한다. 휴가 중이었던 신경호 교육감도 이날 강릉지역 피해 학교 및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학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

江原日報

2023 08 11 ()
05

“산불 복구했더니 이번엔 수해” 강릉 주민들 망연자실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

경포호 인근 상인들 침수피해
“수리 한달만에 물 잠겨” 막막4년 전 고성산불 전소 한식당
토사 유출 직원들 긴급 탈출

“산불의 충격에서 이제 벗어나나 했는데 또 수해를 입었습니다.”

올 4월 강릉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데 이어 태풍 ‘카눈’으로 또다시 수해가 발생하며 강릉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경포호수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2)씨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식당이 침수되는 피해를 당하며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풍과 함께 빗줄기가 거세지며 김씨의 가게 주변은 이날 오후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김씨는 올 4월 강릉 산불 당시 가게 내부가 불에 타 2억원을 들여 지난해 수리를 마쳤던 터라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씨는 “2002년부터 가게를 운영했는데 태풍 무사와 매미 이후로 이렇게 침수된 적은 없었다”며 “산불에 이어 수해로 영망진창이 된 가게를 다시 보수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강릉 산불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 120여세대도 막막한 상황이다.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척, 지인 집 등으로 대피했지만 일부는 대체 숙소가 마땅치 않아 임시조립주택에 머물며 불안에 떨고 있다. 강릉 산불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위급 상

황을 대비해 이들의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고성에도 폭우가 쏟아지며 2019년 산불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들도 다시 한번 재난을 겪었다.

4년 전 산불로 가게가 전소되며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은 토성면 인흥리의 한식당인 젓놀이는 10일 오후 3시20분께 토사 유출이 발생해 임직원 7명이 급하게 탈출했다.

김성진(64) 대표는 “광 하는 소리와 함께 식당 옆 언덕이 무너지며 나무와 흙이 쓸려 내려왔다. 하마터면 토사에 매몰될 뻔했다”며 “빗을 내 어렵게 복구한 가게가 또 무너질까 걱정이다.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호준·권태명·신하림기자

江原日報

2023 08 11 ()
05

양양 하천 옆 축대 붕괴
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양양군 강현면 하천 옆 축대가 붕괴되자 중장비들이 긴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양양=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3 08 11 ()
05

“물 순식간 차올라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

고성 200여세대 긴급 대피 ... 동해 동쪽바다중앙시장 침수

“급한 마음에 아무것도 못 챙겨 나왔는데 걱정이네요.”

10일 오후 5시께 고성 간성읍생활체육센터에는 주민 수십명이 대피해 있었다. 노부모를 모시고 오거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주민들은 구멍이 뚫린 듯 하늘에서 퍼붓는 비를 야속하게 바라봤다.

향목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수로 보강 작업을 하는데 물이 순식간에 차올라 고립될 것 같았다. 간신히 옷만 챙겨 나왔다”며 “대피 도중에도 침수돼 길 한가운데에 멈춰선 승용차도 봤는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고성군에는 시간당 80mm의 비가 쏟아지며 이장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 다니며 긴급하게 대피시켰다. 간성읍 금수리 주민 126세대 236명, 죽왕면 향목리 77세대 151명에 대해 대피령이 내려졌다.

10일 동해시 발한동의 동쪽바다중앙시장은 이날 오후 200여개 점포 대부분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앞서 오전 10시께 하수도에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해 순식간에 물이 차는 피해를 입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역류로 60여개 점포가 침수 영향을 받았고, 이 중 10여개 점포는 판매하던 물

건이 손상됐다.

상인회장인 구용진(59)씨도 건어물 가게 냉동고에 물이 차며 보관 중이던 상품이 손상됐다. 의류, 잡화류 등을 파는 가게들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구 회장은 “도로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상황을 대비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맨홀 역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갑자기 차오른 물로 장애인들이 인명 피해를 입을 뻔했던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이날 낮 12시 동해시 심곡동에서 집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각장애인 2명을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시켰다. 신하림·김천열·전명록기자

江原日報

2023 08 11 ()
04

도내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 전국 최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계절근로자 이탈 규모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구, 인제의 이탈 규모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6년 연속 최상위권을 보이고 있어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17~2022 전국 지자체 계절근로자 이탈 규모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도가 운영한 계절근로자는 7,354명이었다. 이중 중도 이탈자는 933명으로, 도는 운영 규모와 이탈 규모 모두 계절근로자를 모집한 전국 10개 시·도 중 최대였다. 이탈률로 따지면 12.7% 수준이다. 도를 찾은 계절근로자 10명 중 1

도 6년 새 이탈자 88배 급증... 운영 규모 10개 시·도 중 최대 양구 수년간 이탈 규모 상위 5위권 불명예 정책 보완 시급

명 이상은 중도에 일을 그만두고 근로현장을 벗어났다는 의미다.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탈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도내 계절근로자 407명 중 이탈자는 7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846명 중 237명이 무단 이탈했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계절근로자는 3,132명으로 늘었고 이탈 규모도 618명으로 급증했다. 6년간 계절근로자는 7.6배, 이탈자는 88배가 됐다.

기초자치단체별 이탈 규모를 살펴봐도 도는 최상위권에 속했다. 집

계 기간(2017~2022년) 중 코로나19 유행으로 계절근로자 해외 입국이 막혔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7년 양구, 2018년 영월, 2021년 양구, 2022년 인제가 각각 이탈 규모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양구의 경우 2017년 1위, 2018년 3위, 2019년 2위, 2021년 1위, 2022년 4위에 오르는 등 집계 기간 내내 이탈 규모 상위 5위권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인제 역시 2018년 2위, 2021년 4위, 2022년 1위에 오르며 계절근로자들의 집단 이탈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계절근로자 대규모 이탈은 불법체류자 증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효과를 떨어트려 법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탈 원인을 분석하고 모범 지역 사례를 공유해 계절근로자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제군 관계자는 “2022년의 경우 계절근로자 MOU를 맺은 네팔에서 해외취업승인과 관련한 법안을 바꾸며 근로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일이 있었다”며 “올해는 해외 지자체와의 MOU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 현재까지 이탈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이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8 11 ()
11

‘WT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 시의회 통과

<세계태권도연맹>

절차상 이유 등으로 상정 진통 30년 계약·갱신협약으로 조정 19일 협약 예정·후속작업 속도 태권도 중심지 위상 강화 기대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유치 이전 협약 동의안이 춘천시의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시의회 통과로 춘천시는 오는 19일쯤 WT측과 이전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으나 이번 동의안은 상임위원회 미상정, 원포인트임시회 개최라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

춘천시의회는 10일 시의회 본회의

장에서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춘천시가 상정한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유치 이전 협약 동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해당 동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계약 기간이 50년에서 30년으로 조정됐고 5년단위 자동협약은 갱신협약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임시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2023 강원·춘천세계태권도문화축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고 본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정회됐다. 시의회는 해당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내

부 토론에 돌입, 이날 오후 육동한 시장과 면담을 갖고 서야회의를 속개했다. 배숙경, 윤민섭 의원은 행정절차가 미흡하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심의에 불참,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정경숙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춘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다”며 “WT 본부 춘천 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춘천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WT 본부 춘천 유치 이전 협약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춘천시는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협약식은 19

일쯤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본격적인 사무실 설계에 들어가 2027년 완공이 목표다. WT 본부 사무실은 송암동 일원에 들어선다.

WT 본부 춘천 유치를 통해 춘천시는 태권도 중심도시 춘천의 위상을 다시한 번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태권도 관련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 세계 선수단에게 춘천을 알리고 태권도를 매개로 한 관광, 교육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사무실은 2027년부터 운영되지만 그 전부터 태권도 관련 산업과 프로젝트를 꾸준히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tpq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8 11 ()
/ 19

정부 접경지 발전 예산 대폭 반영을

-도 141개 사업 6조원 변경안 제출, 성장동력 기대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안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도는 국방·산림·농지·환경 등 4대 핵심 규제 완화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등 대내외적 변화에 맞춰 141개 사업, 6조원 규모로 계획안을 변경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뿐 아니라 경기도, 인천시 등 나후 접경지역 15개 시·군이 사업계획을 올려 최종 확정될 예산 규모와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강원지역 접경지 회생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획기적인 예산 지원이 기대됩니다.

도가 접경지역 발전계획 변경안으로 재설정된 방향은,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거점산업 육성, 군 유류시설 활용과 생태관광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법에 담긴 4대 핵심 규제 완화를 접경지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오는 2027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한 접경지역 핵심 교통망이기도 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도 계획안에 담겼습니다.

계획안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희망한 신규사업 44개가 추가돼 관심을 모읍니다. 춘천은 소양8교 건설과 공지천 보행환경 개선 등이 제출됐으며, 철원은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화천은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과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양구는 소양호 호수권 관광시설, 펫토피아 조성 이 포함됐으며, 인제는 한국형 은퇴자 공동마을, 활력센터 조성 등이 꼽혔습니다. 고성엔 신활력 복합타운, 아트케이션 거점 공간 조성이 주목받는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강원과 경기, 인천 접경지역에 2030년까지 13조 2000억원 규모로 22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은,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른 부대해체 등 악재로 위축된 접경지는,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성장동력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 등 굵직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변경 제출된 계획안은 접경지 회생을 위한 기초적인 사업들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더구나 일부 사업들은 기존에 추진 중인 IOC 확충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강원 지역 접경지 주민들이 안고 있는 소멸 위기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계획안을 대폭 반영해야 합니다. 예산 배정에도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11 ()
/ 19

태풍 피해 응급복구 전력해야

-고질적문제 개선과 근본책 병행,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태풍 '카눈'이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사흘째 강원 전역 곳곳에 침수와 붕괴, 낙하 등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내 진입 이동 경로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더 틀긴 했지만, 예상대로 속도가 느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9일 오후 속초와 강릉을 시작으로 많은 양의 비바람이 도내 각지에 몰아쳤습니다. 주택 침수로 인한 주민 응급구조를 비롯해 주거지와 상가, 시장과 공공시설, 하천과 도로를 가리지 않고 강풍을 동반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11일도 태풍 영향권에 있기에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인제가 없도록 긴장 태세여야 합니다.

도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 대피와 통제 등 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예상치 않은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삼척에서는 학교 교무실이 침수됐고, 속초에서는 중심가의 관광수산시장이 물에 차고 한때 청초천 범람 위기를 맞았습니다. 강릉에서는 저지대 주거지와 4차선 도로가 침수되는 현상이 되풀이됐습니다. 양양에서는 제방 붕괴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지가 많은 탓에 급경사지의 토사 유출로 도로가 유실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시내에서는 배수문제와 오수 역류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복구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긴급한 응급 복구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며, 복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기 수습에 전력해야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재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 현장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피해 복구 우선순위 도출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복구 자원 관리와 지원 시스템은 세밀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 대규모 태풍 피해와 복구 경험을 토대로 기상으로 인한 재해 반복 취약지를 줄이는 근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태풍 대비 차원에서 통제됐던 각종 생활공간 및 관광지 등에 대한 정상화도 늦지 않게 재개되어야 합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줄어든 피서객과 날씨로 인해 경제가 좋지 않다는 호소가 나옵니다. 국내 직접적인 영향권의 태풍 개수는 연평균 3개 이상으로 또 다른 태풍이 예고된 만큼 긴급한 복구가 원활하도록 중앙정부는 서둘러 복구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8 11 ()

/ 19

초등 교사 임용 역대 최저, 강원교육 이대로 괜찮나

내년 강원지역 초등 교사 신규 선발 인원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신규 임용 규모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당장 놓여온 교육과 학급 편성 기준 수립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고한 2024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공립 유·초·특수학교(유·초), 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따르면 도내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는 총 123명으로 유치원 29명, 초등학교 75명, 특수학교 19명을 선발한다. 초등 교사의 경우 2023학년도 선발 인원인 93명보다 18명 감소했다. 3년 연속 역대 최저치다. 도내 공립 중등학교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총 30개 과목 228명이다. 지난해 6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던 2023학년도 선발 인원이었다던 252명보다 적다.

초·중등 교육 현장의 교사 수급뿐만 아니라 타 시도 진출을 희망하는 교원 역시 매년 400명에 달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실제 올 3월 강원지역을 떠나고 싶다는 교원은 유치원 18명, 초등 66명, 중등 308명 등 총 392명이었다. 2021년 400명, 지난해 388명 등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400명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타 지역에서 강원도로 오겠다는 인원은 훨씬 적다. 올 3월1일 자 타 시도 진출 교원은 중등 22명,

초등 14명, 유치원 2명에 불과하다. 도내 공교육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수없이 많은 대책이 논의됐지만 교원들의 이탈 러시를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하면 인구가 적은 강원교육은 갈수록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면 지역 주민들이 마을을 등지고 자연히 인구가 줄면 지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교원 임용 감소가 가져오는 악순환이다. 강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선결과제다. 교육계에선 교사들의 대도시 선호를 자연스러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도서벽지 근무수당을 인상해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당연시한다면 해결책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교사 임용정책의 실패는 퇴직 교사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낳고 있다. 도농 간 교사 임용 양극화와 교사 구인난은 도농지역 교육 수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사의 증원과 교육 환경 개선이 강원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江原日報

2023 08 11 ()

/ 19

태풍 등 기후 재난 관리, 이제는 일상화해야 한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온 국민은 가슴을 졸였다. 역대 태풍은 바람이 세면 비의 양은 적고, 폭우를 동반하면 바람은 약하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폭우와 강풍을 동시에 몰고 왔다. 역대 태풍보다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이면서 펄펄 끓는 바다로부터 다량의 수증기를 빨아들여 극한호우에 버금가는 비를 뿌린 것이다. 기후재난이다. 이 같은 조짐은 이미 예견됐다.

기상청 분석 결과 올 3~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5도로 역대 최고였다.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라 해가 갈수록 이상기후가 잦고 세지는 양상을 여실히 보였다. 예측이 비슷했던 지난해에도 역대급 국지호우가 나타났다. 2022년 6월 하순에 시작돼 8월까지 이

어진 중부지방 폭우 사태의 상흔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시내 지하철역과 주택·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며 반지하집에 살던 주민 등 시민 다수가 목숨을 잃었다. 전국 각지에서도 홍수·산사태가 발생해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났다.

기후재난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 재난은 취약계층에 먼저 닥쳐온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를 유념해야 한다. 재난이 덮치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면 이미 늦다. 침수 예방책은 물론 재난경보 시스템과 정부·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도 단단히 구축해 가야 할 때다. 이제 재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은 증가하고 사회, 경제 및 모든 영역의 빠른 운행 속도와 그로 인한 변화는 재난 관리를 하나의 전문 분야로 제한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번 태풍 카눈에서 보는 것처럼 재난이 외재적이든 내재적이든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재난 관리에서 자연재난이나 인적 재난 또는 테러 등 모든 재난에 골고루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소방과 방재 분야에서의 균형 잡힌 예산 지출이 필요하다. 자연재해가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에는 인적 재난 및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고 있다.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다룰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재난 관리 분야에서만큼은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무

최악 상황 가정해 대비하고 훈련해야

정부·자치단체 협력체계도 단단한 구축을

위기 대응 매뉴얼, 환경 변화에 맞게 수정할 때

엇보다 중요하다. 재난 관리 매뉴얼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매뉴얼은 재난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은 작성 당시 예측되고 고려되지 못했던 사항이 있는지 여부, 재난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꾸준히 검토해야 한다. 또 재난 관리 매뉴얼의 불필요한 대외비 또는 보완 해제를 통해 매뉴얼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공개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 복합·신종 재난 발생 시 좀 더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민참여형 재난 관리를 위해서도 매뉴얼의 광범위한 공개가 바람직하다.